

고등학생의 개인적·사회적요인, 학교진로교육 경험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김미란, 한수정*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The effects of personal, social factors, and school career experience on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Mi-Ran Kim, Su-Jeong Han*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융복합연구로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7년 5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전 충청지역 소재 8개 고등학교 1~3학년 총 143명이 자기기입식 설문을 작성한 조사연구이다. 설문은 진로 관련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학교진로교육 경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포함하였다. 기술분석과 Pearson's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하였다.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는 진로에 대한 가족상담의 경험과 부모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에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탐색에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를 포함시켜야 하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고등학생, 진로성숙도,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on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From May 2, 2017 to December 2, 2017, a total of 143 high school students from eight different high schools in two city participated the stud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4.0 version program.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experience in career counselling with family, relationship with parent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experience in career counselling with family,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self-efficacy explained an 76.8% of career maturity. We should include parents in their education so that parents can provide counseling and support in their children's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s so that they can enhance their own self-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will directly improve students' self-efficiency in the career path, considering that it can improve their confidence and ultimately affect their career maturity.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sareer maturity, self-efficacy

1. 서론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고 심도 있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지 못한 상태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분위기는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교에 입학 한 학생들로 인해 대

*Corresponding Author : Su-Jeong Han (sjhan@konyang.ac.kr)

Received July 9,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Revised August 16,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1-3].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진로와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도 신설하였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 건전한 진로관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1,2,4,5].

고등학교는 진로교육의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형식적으로 교육하는 마지막 단계이며,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로와 직업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된다[2,5]. 우리는 어떤 진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 등 생활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6].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발시켜 주체적인 삶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확하면서도 구체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7]. 진로교육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므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입장의 인적자원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소가 된다[5,7].

전 생애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현실적인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진로와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2,5]. 직면하게 되는 직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개인이 어떤 준비와 대처 행동을 나타내는가를 진로성숙도라고 한다. 진로태도에 대해 성숙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 개인적인 선호와 열정을 지니며, 진로를 현실적으로 탐색하고, 진로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이해도와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성취감과 일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8].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로성숙도와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3].

청소년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중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온 것이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

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다. 사람들의 행동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9], 과제를 수행하거나, 노력을 지속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성취 수준과 진로성숙도에도 영향을 미친다[3,10-11].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정배경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 소득 및 직업,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활동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학교 환경요인으로는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 성적과 진로활동 경험 등이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0,12-14]. 이와같이 고등학생 입장에서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자기효능감, 가정배경과 학교환경이 나타났다.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다수가 진행되었으나 각 변인들을 포괄하는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학생의 개인적이고 내적 성장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선택하였으며, 가정적 배경과 학교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과 학교진로교육 경험을 선택하여 진로성숙도에 영향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진로교육 수행과 진로선택을 준비하는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학교 진로 경험적 요인,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도구

진로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학교진로교육 경험과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Oh[10]와 Son과 Yoo[15]의 진로선택 관련요인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사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진로관련 경험, 사회적 요인, 부모와의 관계,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상담 경험,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27문항 척도이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1$ 이었다.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Jeong과 Park[16]이 수정보완한 26문항의 도구 중 부정형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모호하게 인식되어 신뢰도를 낮추었던 1문항을 제거하여 2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7$ 이

었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5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전 충청지역 소재 8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자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학교장과 지도교사의 허락 받은 뒤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익명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한하여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G*power 3.1.2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123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총 15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설문 내용이 불충분한 7명을 제외한 최종 연구 대상자는 총 143명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version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고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대부분이 여학생(75.5%) 이었고, 아버지 직업은 자영업이 39명(27.7%), 학력은 대졸이 79명(58.5%)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무직이 43명(30.7%), 학력은 고졸이 59명(4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은 중 등급이 61명(43.9%)이 대부분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3)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35(24.5%)
	Female	108(75.5%)
School year	1 year	69(48.6%)
	2 year	20(14.1%)
	3 year	53(37.3%)
Occupation of Father	Administrative	46(32.6%)
	Sales	7(5.0%)
	Production	9(6.4%)
	Business (private business)	39(27.7%)
	Government Employee	20(14.2%)
	Teacher	4(2.8%)
	Medical personnel	2(1.4%)
	Other	14(9.9%)
Father's educational level	Elementary/Middle school graduate	3(2.2%)
	High school graduate	41(30.4%)
	Bachelor (including community college)	79(58.5%)
	Graduate school	12(8.9%)
Occupation of Mother	Unemployed	43(30.7%)
	Administrative	24(17.1%)
	Sales	9(6.4%)
	Production	7(5.0%)
	Business (private business)	12(8.6%)
	Government Employee	7(5.8%)
	Teacher	16(11.4%)
	Medical personnel	11(7.9%)
	Other	11(7.9%)
Mother's educational level	Elementary/Middle school graduate	3(2.4%)
	High school graduate	59(46.8%)
	Bachelor (including community college)	58(46.0%)
	Graduate school	6(4.8%)
Academic ¹⁾ GPA.	Exceedingly above the average	6(4.3%)
	Slight above the average	28(20.1%)
	average	61(43.9%)
	Exceedingly below the average	34(24.5%)
	below	10(7.2%)

¹⁾ GPA: Grade point average

3.2 대상자의 개인적요인, 사회적요인, 학교진로 경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정도

대상자의 교사관계는 3점 만점에 평균 2.43±0.85점이었고, 학교에서의 진로관련 경험은 2점 만점에 평균 1.19± 0.85점, 사회적 요인은 2점 만점에 1.92± 0.25점, 부모와의 관계 5점 만점에 평균 3.86± 1.29점, 가족과의 진로상담 경험은 5점 만점에 평균 3.71± 1.23점,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8± 1.10점으로 나타

났다. 진로성숙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4± 0.8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The degree of characteristics (N=143)

Variables	Mean±SD	Range
Relationship with teacher	2.43±0.85	0~3
Experience in career activities in school	1.19±0.85	0~2
Social factor	1.92±0.25	0~2
Relationship with parents	3.86±1.29	1~5
Experience in career counseling with family	3.71±1.23	1~5
Self-efficacy	3.58±1.10	1~5
Career maturity	3.54±0.88	1~5

3.3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

고등학생은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r=.844, p<.001$)이고 진로와 관련하여 가족들과 상담한 경험이 있을수록($r=.834, p<.001$),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r=.810, p<.001$)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s for career maturity of participants (N=143)

Variables	Career maturity	
	r	p
Relationship with teacher	.010	.917
Experience in career activities in school	-.160	.080
Social factor	-.056	.726
Relationship with parents	.844	<.001
Experience in career counseling with family	.834	<.001
Self-efficacy	.810	<.001

3.4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33.59, p<.001$),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와의 관계($\beta=0.387$)와 가족과의 진로상담 경험($\beta=0.249$), 자기효능감($\beta=0.296$)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76.8%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career maturity of participants (N=143)

Variables	B	SE	β	t	p	Adj R ²	F	p
Constant	1.383	0.109		12.727	<.001			
Relationship with parents	0.210	0.053	0.387	3.989	<.001	.768	133.59	<.001
Experience in career counseling with family	0.143	0.059	0.249	2.440	.016			
Self-efficacy	0.195	0.053	0.296	3.706	<.001			

4.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부모관계는 5점 만점에 평균 3.86점, 가족과 진로상담 경험은 5점 만점에 평균 3.71점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 모두 중간 점수를 상회하여 다른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0,18-19]. 즉,가족체계가 잘 유지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며,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가족기능의 건강한 정도가 보통정도라고 볼 수 있다[18].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8점으로 중등도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며,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고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보통 이상임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9]. 고등학교 시기는 자기효능감이 행동과 행동변화를 중재하는 매개요인이 되는 때 이므로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진로영역에서 발휘되어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 진로상담 경험의 정도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생들이 진로태도에 대해서 ‘부모’가 가장 큰 역할을

하며[17], 부모들은 자신들 자녀의 능력과 자질을 조기에 파악하여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12]과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들이 가족들과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하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많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높게 나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지지 관계가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대화를 유발하였고[10], 학생이 진로와 직업선택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서 제공받을수록, 진로문제를 부모가 함께 고민해 주고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줄수록, 부모에게서 물질적 지원을 받을수록[5],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언어적으로 자녀의 진로탐색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자녀에게 진로에 대해 모델링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에[19] 자녀의 진로성숙도는 향상되었다고 한 선행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가 학생을 양육하는 태도가 긍정적이고 학생과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에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0], 매 순간마다 자신의 진로의 기회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고등학생에게는 부모-자녀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올바른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반면에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타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10,12], 교사의 심리적 지지가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에 영향을 주며, 가정에서의 진로경험에도 영향을 주어 학생의 진로에 관해 학교와 가정이 협력적 관계로 이어졌다고 한 연구결과[10]에 비추어 볼 때 추후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조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지되었다[10,19]. 자기효능감은 청소년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중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는데[10],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차원 및 행동절차를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신념을 말하는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10]. 일부 연구에서는 특성화고교를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일반계 고교를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

기효능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관련 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애착이 이를 조절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10,21] 진로성숙도에 대한 부모 역할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에 영향 미치는 변인을 확인한 결과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진로상담 경험과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76.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지되었다[5,10,19,21]. Han 등[22]은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확인한 결과 여학생 일수록,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거나, 학생의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그리고 진로상담 경험이 있을수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an과 Oh는[19] 부모지지와 진로효능감이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며, 진로효능감은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완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효능감은 향상되고 그 결과로써 자녀의 진로성숙도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Oh[10]는 부모가 직접적인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진로를 한 번의 선택이 아니며, 인생의 매순간 마주치게 되는 여러 기회들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바라볼 때, 진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진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진로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여 진로에 대한 성숙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5]. 본 연구의 의의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적 측면의 자아효능감과 진로관련 개인적 경험, 사회적 경험, 학교 진로교육경험을 융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족들과 진로상담을 한 경험이 있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및 올바른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고등학생은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진로상담 경험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과 관련한 정책 수립 시 다음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학생이 진로를 인생에서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성숙한 진로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모와의 관계와 가족들과의 진로상담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부모가 자녀의 진로탐색과 결정에서 상담과 다양한 지지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부모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진로영역에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이런 자신감이 궁극적으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진로관련 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전 충청지역의 8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양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를 임의 표출하였기 때문에 고등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학교에서 표집하고 사례수를 늘려 자료수집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여 진로관련 개인적 경험, 사회적 경험과 학교진로교육 경험 변수들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횡단적 조사에 의한 분석에 의해 주관적 인식 자료만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실제 진로성숙도와 의 연관관계를 정확히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객관적 자료를 함께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연구방법론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해보길 제안한다.

REFERENCES

- [1] Y. J. Choi & J. Y. Kim. (2016). Career counseling teacher's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level of counselor development and job roles -based asses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3), 23-45.
- [2] D. Y. Kim, O. S. Oh & S. B. Kim. (2012).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matur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5), 71-91.
- [3] S. J. Han.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5), 559-566. DOI : 10.7475/kjan.2013.25.5.559
- [4] J. S. Oh. (2014). Career counseling teacher's perception of the roles and tasks : the analysis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2), 41-64.
- [5] J. W. Jung. (2016). Effect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and parental support on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4), 139-158. DOI : 10.19034/jkheea.2016.12.28.4.139
- [6] B. S. Ko & Y. H. Kim. (2011).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4(2), 29-42.
- [7] C. Y. Jung, J. C. Jeong, J. B. Lee, D. G. Jeong, H. S. Lim, S. J. Lee & J. H. Lim. (2015). Career education in south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3), 155-171.
- [8] K. H. Lee & J. C. Han.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1), 167-189.
- [9] A.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10] S. Y. Oh. (2012).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fficiency on career education experience and career maturity: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andidates of general high-school vocational high-schoo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3), 77-94.
- [11] S. A. Shin & J. S. Chun. (2015).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mediated by self-effica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7(3), 111-136.
- [12] S. J. Han & M. R. Kim. (2017). Convergence analysis of nursing choice factors i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1), 109-114. DOI : 10.15207/JKCS.2017.8.11.109
- [13] Y. J. Hwang. (2007). Determinants of career decision and

perceived level of career information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Research of sociology of education*, 17(1), 131-158.

- [14] H. Y. Hong & T. M. Yoo. (2008). Analysis of influential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self-ident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3), 49-64.
- [15] E. J. Son & Y. J. Yoo. (2003).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students' career choice related to science.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7(2), 113-123.
- [16] H. Y. Jeong & O. L. Park. (2009).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sense of value,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career maturity level of beauty care maj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Beauty and Art*, 10(1), 35-49.
- [17] E. J. Jeon, H. J. Lim & T. J. Sung.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family backgrounds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on their advancement to a high school according to the types of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3(1), 1-27.
- [18] N. H. Yang & E. S. Hong. (2011). A study on the family strength and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23(4), 143-157.
- [19] S. M. Han & I. S. Oh. (2014). The influence of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 support and caareer self-efficacy upon career maturity.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2(1), 261-281.
- [20] S. N. Soe, S. K. Lee & S. H. Lim (2012).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8), 327-333.
- [21] H. N. Lee, J. H. Kim & D. K. Kim. (2009). A study on effect of career-related activities on career maturity and the moderate effect of self-belief and parent attachment in this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8), 129-148.
- [22] H. J. Han, J. H. Yang, H. Y. Kim & Y. M. Kim. (2018). Analysis of affecting career maturity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2), 381-398. DOI : 10.24159/joec.2018.24.2.381

김 미 란(Mi-Ran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간호학 석사)
- 2008년 7월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 2012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간호학 박사)
- 2010년 8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환자안전, 간호역량, 이직의도, 암 생존자
- E-Mail : mrkim@konyang.ac.kr

한 수 정(Su-Jeong Han)

[정회원]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간호학 석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간호학 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만성질환 간호, 리더십, 간호교육
- E-Mail : sjhan@konyang.ac.kr